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6월 28일(일) 제1595호



2025 '714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7월 17~18일 잠실학생체육관
500여 한국 교회 2만여 성도 참석... 참가신청 홈페이지, QR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초교파 연합 기도 운동 ‘714연합기도대성회’ (이하 714기도회)가 오는 7월 17일(금)과 18일(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17일(금)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18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사 62:6)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500여 한국 교회 2만여 성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714기도회는 이들 동안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7월 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세션 1’,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세션 2’가 이어진다. 18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세션 3’,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세션 4’,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션 5’가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기도회는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김도훈 목사(신림동산교회), 김경석 목사(필그림교회), 이요한 목

사(수원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범어교회), 남경우 목사(GMTC),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 류성룡 목사(흠어진화평교회)가 인도한다. 찬양은 신길교회, 더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찬양팀과 아이다이61이 한다.

714기도회 참가신청은 714연합기도운동 홈페이지(714praymov.org)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초해 매년 7월 열리는 한국 교회 연합 기도 운동이다. 올해로 4번째 행사다.

문의: 02-868-8425

/ 홍하영 기자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목회자와 관계자, 청년 등 9,124명 참석

대학청년부가 주최하는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카운트다운)이 막을 내렸다. 올해 카운트다운은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목회자와 관계자, 청년 등 9,124명(19일 1,620명, 20일 2,181명, 21일 5,323명) 참석했다<관련 지면 4-5면>.

조용범 형제(수원온누리교회)는 “카운트다운에서 경험한 예배와 연합을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어가도록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기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인생의 흥해 앞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식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차세대 여름사역 본격 시작!

7~8월 교사 기도회, 여름 캠프, 아웃리치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의 여름사역이 본격 시작됐다. ‘2026 여름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포문을 연다. 2026 교사 기도회가 7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믿음으로 걷는 교사들’을 주제로 진행된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차세대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한다.

7월과 8월 차세대 여름 캠프가 이어진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차세대 113개 부서, 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차세대 여름 캠프는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를 주제로 이어진다.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등을 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유아부·유치부)와 꿈이자라는

땅(유년부·초등부·소년부)이 대상이다.

과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돌파’를 주제로 외부에서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두려움을 돌파하라’, ‘불가능을 돌파하라’, ‘망설임을 돌파하라’를 소주제로 찬양과 설교, 강의, 기도회 등을 한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27개 팀 566명, 해외 32개 팀 524명이 참여한다. 국내 팀은 전라남도 담양, 경기도 부천 등에서 성경학교, 어르신 섬김 등의 사역을 한다. 해외 팀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어린이 캠프, 노방 전도 등을 한다.

한편, ‘교사 감수회’가 막을 내렸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를 주제로 지난 5월 30일(토)부터 6월 27일(토)까지 이어졌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1,500여 명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양지온누리교회 새 이름 ‘용인온누리교회’

6월 27~28일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예배

양지온누리교회가 지난 6월 25일(목)부터 ‘용인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대표적인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용인온누리교회 ‘창립주일 감사예배’도 드린다. 6월 27일(토) 오전 9시, 28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김사무엘홀(본당)에서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는 국수를 제공한다.

양재경 목사(용인온누리교회 담당)는 “용인온누리교회의 지난 14년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발자취였다”면서 “새 이름으로 거듭난 용인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2026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7월 3~4일 일본 인자이시(TCU)

러브소나타본부가 주관하는 ‘2026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이하 2026 The Way)’가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잠 3:6)를 주제로 7월 3일(금)과 4일(토) 일본 인자이시 문화홀과 도쿄기독교대학에서 열린다. 7월 3일 인자이시 문화홀에서 열리는 2026 The Way 집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토미야스 스미토(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해금 연주자 조형주 자매가 특선한다.

7월 4일(토) 도쿄기독교대학에서 진행되는 ‘YUME CONFERENCE(유메 콘퍼런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선택식 강의, 한일연합기도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택식 강의에서는 야마구치 요이치 목사(도쿄기독교대학 특별교수) ‘전쟁 후 80년 회개, 화해, 노력’, 키쿠치 미노루 목사(도쿄기독교대학 특임교수) ‘성경 고고학의 세계’, 신경훈 목사(갈렘 공동체 담당) ‘청년, 오늘을 살다!’, 오카자와 하지메(ESC Japan) ‘얼티밋 프리스버’, 야마가타 노부히로 목사(하토가야복음자유교회 협력) ‘신앙과 진로 선택’, 시무아 토모키(hi-ba) ‘친구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지금까지 살면서 잊지 않는 누군가의 음성이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지치고 낙심해서 절망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는 목소리, 모두가 등을 돌릴 것 같은 상황에서 “괜찮아,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부모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스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규정하는 어떤 음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음성은 우리를 평생 짓누르고, 어떤 음성은 우리를 평생 떠받칩니다. 어떤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사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500년 전, 한 음성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담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담대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매우 소심했고, 두려워했고, 자책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마귀가 귓가에 다가와 그가 지은 죄의 목록을 끝없이 읊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개혁이냐?”라는 음성이 그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라틴어 ‘바프티자투스 숨(나는 세례를 받았다)’이라는 의미의 문장을 써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문장을 그가 무너질 때마다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이루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진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마귀의 정죄를 물리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했고, 끝까지 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음성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불드셨던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합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의 줄입니다. 자기 죄를

나를 따르라(6)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마태복음 3:13~17

고백하며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으로써 세례를 받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줄에 자백할 죄가 없으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막아섰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줄을 잘못 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15절).

여기서 ‘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가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메시야가 죄인 중 하나가 됨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자리, 곧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완전히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정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우리의 자리,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인 됨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사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16~17절).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닫혀 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여러 그림으로 예표됩니다. <창세기>에는 비둘기라는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표현은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둘기의 출현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비둘기를 풀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심판의 물이 가라앉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함, 순결함, 평강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뚜렷하게 나타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됨과 교제가 잠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

그 가운데 들려온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매우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돌이킬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진정한 이삭, 새로운 이삭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창 22:12).

오랜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롬 8:32).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어주신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칼을 면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칼을 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장 6~7절 말씀은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선언을 미리 예언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과 함께 그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끝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종으로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단순한 소개도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일종의 취임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이제 너는 죄인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을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보내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좌에 오르시는 왕이신 동시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종으로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이 음성에는 ‘낳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순간 비로소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굳이 이 세례의 장면에서 그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셨을 때는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도 고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음성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만 들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체를 떠받쳐 주는 음성이었습니

다. 듣고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일 금식 끝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공격입니다(마 4:3~7).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떼다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보임으로써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더 깊은 이유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인정과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칭송하든 공격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막 9:7).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들었던 그 음성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걸음마다 들려온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모든 여정, 예수님의 공생애를 붙잡아 주셨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 공동체, 이 세상과 선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들려온 이 음성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들려진

그 음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과 연합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자리에 서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기에 그분에게 들려온 음성이 곧 우리에게 들려온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15~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셨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이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이 음성, 이미 받은 사랑에서 시작된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약함조차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조차 자랑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음성이 광야를 지나 십자가를 향해 나가던 예수님을 붙잡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

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모든 시험을 거뜰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사랑을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전해줄 때, 자녀가 그 음성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서로 잘났는가?”라며 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음성을 함께 듣는 자리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과 선교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서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물속으로 들어오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Countdown

Follow Me!

거룩한 모험 결단한 청년들 9,124명 참석

FA 14명, TP 13명, OSOM 14명, 배.남.프 92명 신청

(청년 단기선교)

(단기선교)

(장기선교)

(배워서남주자프로젝트)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청년들이 거룩한 모험을 결단했다. 지난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이하 카운트다운)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번 집회에서 청년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 올해 카운트다운에서는 FA(청년 단기선교사) 14명, TP(단기선교사) 13명, OSOM(장기선교사) 14명, 배.남.프(배워서남주자프로젝트) 92명이 신청했다. 그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다.

/ 박지혜, 홍하영, 남현영 기자

Countdown 6. 부르심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카운트다운의 막이 올랐다. 갑작스레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예배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청년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긴 줄을 섰다.

창동염광교회 WE팀의 찬양과 가수 양파의 특선으로 집회의 문을 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 55:6~9)을 주제로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가 했다. 황목사는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지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Countdown 5. 순종, 4. 연합, 3. 열방

6월 20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이 다시 한번 청년들의 기도와 함성으로 들썩였다. 온누리위십의 경배와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김

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배하는 한 사람’ (시 63:1~4, 골 2:6~7)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목사는 “참된 예배는 주목받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연합으로 가는 길’ (빌 2:5~8)을 주제로 했다. 문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는 강력한 연합이 필요한데, 그 연합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면서 “연합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수 6:15~21)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여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킨 바탕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약속이 있었다”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인도로 합심기도도 했다. 청년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과 교회와 세대를 넘어선 연합,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Countdown 2. 회심, 1. 완성, 0. 승리

카운트다운 마지막 날 집회 열기가 엄청났다. 장충체육관 1층과 2층 관객석에 예수 따르기로 결심한 청년들이 가득했다. 무대 뒷좌석과 통로 바닥까지 발 디딜 틈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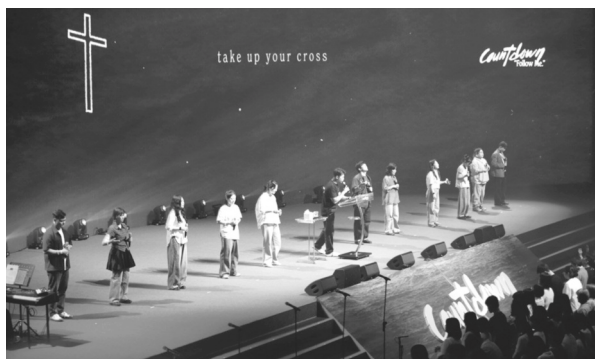
첫 번째 설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가 ‘온 힘을 다한 예배’ (삼하 6:1~15)를 주제로 했다. 박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무대나 잘 짜인 순서가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예배”라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 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축복했다.

찬양 사역자 지미선의 무대에 이어 양승훈

선교사(차드 선교사)가 ‘보냄 받은 자’ (요 20:21~22)를 주제로 설교했다. 양 선교사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현장으로의 초청장”이라며 “훗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외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별 게스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Christopher Wright,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의 권면도 이어졌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방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모험’ (눅 9:23~24)을 주제로 했다. 이목사는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모험심’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걷기를 결단하라”고 권면했다.





현장 인터뷰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

잃어버렸던 뜨거운 영성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황성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조차 저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며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르심' 이었는데, 최근 순장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리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일상에서도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머무는 일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며 살고자 합니다.



유재연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부르심 의심하지 않고, 순종!

올해 국내외 아웃리치에 모두 참여합니다. 특히 국내 아웃리치 팀장을 맡으면서 느낀 부담감과 처음 도전하는 해외 아웃리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 여름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연합'이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방전도에 나섰는데, 팀원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합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자 아닌 공동체로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게 맡기신

자리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은재 자매
(허브대학부)

작은 순종으로 함께!

카운트다운 접수팀 스태프로 섬겼습니다. 집회 첫날 비가 많이 와서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우산을 쓰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청년을 이 자리로 불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나를 구하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접수팀의 섬김 역시 교역자들과 많은 스태프들의 피땀 어린 헌신 위에 저는 작은 순종으로 함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를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지원 자매
(허브대학부)

나 한 명이라도!

카운트다운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이야말로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제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천의 또 다른 임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방해물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나 한 명 눈을 감고, 귀

를 막고, 입을 열지 않아도 세상에는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이 도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나 한 명이라도'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내 옆에 이웃에게 기꺼이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이종혁 형제
(여호수아청년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자신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이성적인 사람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만 믿는다”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다. 종교적 믿음에 대한 무신론의 흔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정말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가? 그렇지 않다.

첫째, 무신론은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과학은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한다. 물질은 텅 빈 무(無)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은하, 별, 행성, 사람, 동물은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 왔다. 무신론자들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부인한

다. 그 결과 그들은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학 지식은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무신론은 생명이 무(無) 생명에서 나왔다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과학은 또한 살아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살아 있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친다. 새로운 나무가 살아 있는 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포도 살아 있는 유기체에서만 나올 수 있다. 무신론자들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창조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관찰된 적이 없으며, 과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신의

믿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셋째, 무신론은 자신의 추론 과정을 신뢰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도록 뇌를 신뢰하며,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 의견과 믿음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라.

“우리의 뇌가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 과정의 결과라고 한다면, 당신의 뇌가 당신이 맡긴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무신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뇌는 완전히 기능하고 이성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아직 천만 년이 더 남았을 수도 있다. 무신론은 생명이 무(無) 생명에서 나왔다는 것과 같은 비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 쓰는 도구인 정신의 신뢰성을 약화함으로써 무엇이든 이성적이라고 믿을 이유 자체를 무너뜨린다. 어떤 신념 체계

를 가지고 있든, 인간 지식의 한계로는 훌륭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이지만 무신론은 이성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무신론은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는 없다.”

“무신론은 생명이 무(無) 생명에서 나왔다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과학이 지금까지 가르쳐 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

“무신론은 당신의 정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지만, 왜 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공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무작위로 조립된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정신에 의존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한국 기독교와 정교분리의 문제(2)

변질되는 정교분리와 한국 교회의 과제



장선범 목사
(양재A공동체 담당,
양재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현대 행정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 양상이 크게 뒤바뀌고 있다. 본래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이 원칙이 오늘날에는 거꾸로 세속 권력이 종교적 표현

과 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반전되어 적용되고 있다. 종교를 보호하던 든든한 방패가 어느새 종교를 겨누는 예리한 칼날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교분리의 역설을 보여준 첫 번째 쟁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내려진 ‘종교시설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였다.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 복리를 이유로 교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당시 3인의 대법관(김선수·이동원·김상환)이 낸 반대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면 접촉 위험이 유사한 식당, 결혼식장, 대중교통 등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독 종교시설에만 ‘전면 집합 금지’를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덜 침해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린 목회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긴급명령을 근거로 예배를 차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교회

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의 정교분리가 공익을 명분으로 예배 자체를 범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쟁점은 ‘공직선거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종교 영역에서 ‘직무상 행위’를 빌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인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신앙과 양심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거나 반기독교적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범죄화함에 따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 현안을 비판하는 예언자적 설교마저 형사처벌의 위협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목회자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검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목회자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가 아니라도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고, 강

제로 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종교법인 해산법’의 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사립학교법’이다. 교육 현장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독교 사학에 있어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삶으로 구현하는 주체다. 그러나 현행 강제 위탁 시스템에서는 필기 점수만 높다면 비종교인은 물론 타 종교인이거나 이단 추종자까지도 기독교 사학의 교단에 설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학교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신규 채용 교사 중 비기독교인 비율이 75%에 달하는 등 건학이념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다. 교원 임용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이며, 채용 비리는 형사처벌 등 다른 수단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임용 절차 전체를 국가가 빼앗아 간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마저 통과된다면, 기독교 사학뿐 아니라 기독교재단이나 교회조차 인사 자율성이 박탈 당하게 될 것이고, 불응할 경우 가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구체적 쟁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정교분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본래 종교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미국형(자유 보장형) 분리’ 모델에서, 공적 영역의 방어를 명분으로 종교를 철저히 통제하고, 그 영역을 축소하는 ‘프랑스형(국가 통제형) 분리’ 모델로 위협하게 이동하고 있다. 종교의 외적 실천과 조직 운영 전반을 국가가 정의하고 감시하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요구해야 할 것은 국가의 ‘특권’이 아니다. 국가의 보호를 청하는 순간 국가의 개입과 통제 역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요구해야 할 것은 ‘자유 보장형 정교분리’라는 본래의 헌법 정신이다. 국가 권력은 교회가 가진 교유의 신앙적 교리와 내부 운영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시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한다. 교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말씀대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거센 파도에 맞서 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적 가치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어머니이자 현대 헌법의 산파”라고 부른 것처럼, 종교의 자유는 근대 기본권 체계의 출발점이자 국민 전체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수호하는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정교분리가 종교를 억압하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헌법의 본래 정신을 지켜내는 일은 단지 교회 내부의 신앙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세대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위대한 소명이다. 거센 시대적 도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 바로 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길은 결국 깨어 있는 기도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한국 교회의 실천적 결단에 달려 있다.

이슈(Issue) 바로보기!

AI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의 소명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AI 인류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 삶의 방식과 존재 의미까지 변화되고 있다. 이 문명 대변혁의 시대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무엇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이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통찰에 이르게 된다.

AI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AI는 인류에게 ‘제2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 뱀은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다.

“...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오늘날 AI 역시 뱀의 유혹과 닮았다. “AI 기술은 너를 하나님처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의 눈을 밝히고, 너를 전지적 판단자로 만들 것이다. 너는 더이상 수명의 한계 속에 머물 필요가 없다.”

AI가 지능을 확장하고,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며, 심지어 생명과 윤리의 영역까지 재구성하려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선악과가 될 것이다. AI가 인간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교만과 결합할 때 우상이 되고, 결국 인류를 재앙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AI 인류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신앙적 시험대다. 따라서 AI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닌 ‘기독교 AI 윤리적 정당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AI 사용에 있어 ‘기독교 AI 윤리 강령’과 ‘기독교 AI 사용 윤리 십계명’

을 준수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 공동체 ‘교회’

AI 인류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명이 재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 될 것인지는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관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

AI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회복이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며,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다. AI 시대 교회는 AI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되, 사명의 주체로 서야 한다.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AI는 우상이 되지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AI는 복음을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 위험 앞에 서 있다. 하나는 AI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전자는 AI 시대 변화를 외면하는 태도이고, 후자는 AI 기술을 우상화하는 태도다. 교회는 이 두 극단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분별력을 가지고 AI를 선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경 속 ‘물’이 심판의 재앙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기적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AI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용하느냐, 혹은 거역하며 오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 다섯 가지 사명

AI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시대적 사명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이는 어떤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그러나 AI가 사고와 판단, 창작 영역까지 확장되는 오늘날, 인간은 점점 기능적 존재로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때 교회와 크리스천은 인간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귀한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인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AI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성경적 관점의 기독교 AI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 AI를 복음 확장의 도구로 선용하는 것이다. 넷째, 다음세대를 올바른 기독교

교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다섯째, AI가 인류를 위한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AI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AI 인류혁명 시대에 교회와 크리스천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전 세계인이 좋아하게 된 지금의 축복은 AI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AI 문명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야 한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이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실천할 때, AI는 제2의 선악과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은 AI 인류혁명 시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이다.



안중배 집사
(성북공동체, 국제미래학회 회장,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 <AI인류혁명시대 교회의 미래와 기독교 AI윤리> 저자)

크리스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입술의 말’

하나님은 아기였을 때 죽을 뻔했던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셨으며, 80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경솔한 말을 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해 보이고, 오랜 훈련을 통해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가장 약한 부분은 결국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얼마나 힘든가요? 종이에 살짝 베인 상처는 이틀이면 아물고, 멍은 일주일쯤 지나면 사라지고, 감기도 길어야 2주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남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아물 수 있을까요?

예전에 4학년 여자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힘든 일은 없니?”라고 묻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짹짹 놀라 휴지를 건네고 한참 동안 아이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 유치원 때 한 남자아이가 저보고 못생겼다고 놀렸어요”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최소 4년 전 들었던 그 한마디를 아직도 눈물이 흐

를 만큼 아프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어 시간에 토의에 대해 배운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토의를 통해 ‘금지어 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 “어쩌라고”와 같은 말, 욕설로 ‘사갈’이라고 말하는 것 등 8가지 실천 사항이 제안됐습니다. 보통 학급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 가운데 몇 가지만 실천 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뽕뽕한 회장님이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3가지만 정하면 나머지 5가지는 해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 8가지 모두를 금지어로 정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이 금지어가 너무 많으면 아예 말을 못 할 것 같이라며 세 가지만 정하고 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다음 시간까지 더 생각해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체육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틈틈이 이야기를 나누듯 보였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의견대로 여덟가지 모두를 금지어로 정하되, 3가지는 선생님이 이미 지도하고 계시니 나머지 5가지를 이번 회의의 실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화가 사갈의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회의가 끝난 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서 알았습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있는 말의 뜻을 바꿔 욕설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교실에서 보면 거친 말을 하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늘 비슷한 몇몇 아이들입니다. 실수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교실에서는 여전히 “똥똥하다”, “못생겼다”라는 말이 오갑니다. 다만 선생님인 저에게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과 이번 경험을 떠올리며, ‘비난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아이일수록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조용히 삭이는 아이는 속으로 병이 들고, 그 상처를 말로 쏟아내는 아이는 다름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격려, 응원과 용기, 희망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

에게 하는 말의 시작은 분명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는 그 말속에서 비난과 질타, 미움과 공포, 무능감과 무가치함만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꾸짖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 없는 사람처럼 훈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역시 제 마음앞에 거울을 세워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모와 교사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복음 통일’과 ‘통일 시대’ 준비!

한누리통합팀과 통일선교팀의 역할과 사명

올해 6월,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 이제 통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뜻 안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결코 영원한 현실이 아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과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 거룩한 사명의 중심에 ‘한누리통합팀’과 ‘통일선교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통일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다 함께 복음 통일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며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사역칼럼

온누리교회 통일선교사역의 비전



전순영 권사
(통일선교팀, 북누리공동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통일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진다. 북한은 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한반도에도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 가서 통일 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통일을 준비해 나갈 주체는 결국 교회다.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은 곧 북한 선교의 문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복음 통일’을 지향한다. 복음 통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중심에 둔 통일을 의미한다. 그

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선교적 실천이 바로 ‘통일선교사역’이다.

온누리교회의 통일선교사역은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을 섬기는 ‘한누리통합팀’과 통일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통일선교팀’이 주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4천 명의 북향민(탈북민의 정부 공식 용어)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들이다. 사회선교본부 한누리통합팀이 북향민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누리통합팀의 사역은 2003년 양재온누리교회 기도모임에서 시작됐다. ‘통일한국에 세워질 모델 교회를 준비하자’는 비전 아래 ‘하나공동체’ 예배가 시작됐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급증한 북향민을 섬기는 사역을 본격화했다. 이후 ‘탈북민종합회관’과 ‘한터공동체’를 비롯해 여러 온누리교회 캠퍼스에

북향민 예배공동체가 세워졌다. 현재는 예배와 순예배, 정착지원, 장학금, 기숙사 운영, 하나원 방문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북향민의 정착과 제자 양육을 돕고 있다.

또 다른 통일선교사역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산하 통일분과위원회와 통일선교팀이 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통일위원회는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준비된 인재를 세우자’는 비전으로 시작됐다. 위원회 산하의 통일선교팀은 한누리통합팀에 소속되어 2018년부터 통일선교학교를 운영해왔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가 변화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통일 선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외에도 통일선교팀은 전문가 강의, 학술포럼, 기도회 등을 개최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일관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차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역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국내 입국 북향민 수가 연간 100명대

로 감소했다. 남북 관계도 극도로 경색돼 있다. 이 상황에서 온누리교회 통일선교사역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다음세대가 통일선교사역의 바통을 이어받도록 해야 한다. 청년과 차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북향민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북향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동역자로 세우고, 70여 개 북향민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 셋째, 교회 안에 올바른 성경적 통일관을 세워야 한다. 북한을 바라볼 때 체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받는 주민들과 구원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 통일과 통일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간증

북한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북한에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할 때까지 국가가 결정했다. 허락된 정보만 접하며 살아야 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찾아왔다. 처음으로 인터넷과 외부 뉴스를 접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 거짓 선전이었음을 알게 됐고, 탈출을 결심했다. 북송 위기에 처해 절망하던 순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말씀을 배우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를 위해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목회자와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온 북향민들도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에 다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것이다.



송바울 전도사
(한터공동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퉁이들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전까지 하나님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속 인물이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다. 어린 마음에도 힘들고 답답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 계신 분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터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쁜 순간도 있었고, 인간관계와 공부,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었다.

지금도 나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10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치유의 하나님,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살고 싶다.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김원아 학생
(북향민 성도 자녀)

반도체 속에 숨겨둔 ‘창조주의 비밀’

이 시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



권혁은 장로
(온믿음공동체,
현)IKP/성우 기술경영
고문, 알파사이츠
자문)

현대 문명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이자 신경계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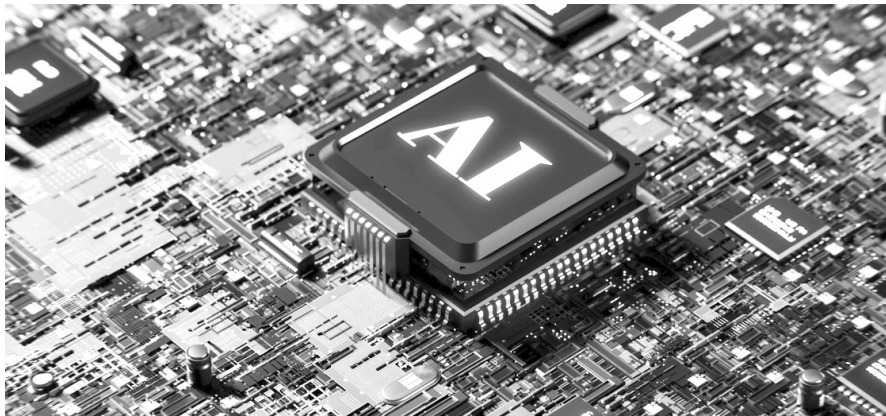
담당하고 있지만, 이 정교한 실리콘 조각이 단순한 기술의 산물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에 심어두신 영적 원리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반도체의 물성적(物性的) 원리를 통해 이 시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핑 공정

반도체 공정의 핵심은 ‘흐르지 않던 곳에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순수한 실리콘(Intrinsic Silicon)은 원자에 전자 4개가 단단히 결합해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특정 불순물을 아주 미세하게 첨가하는 ‘도핑(Doping)’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전자(Electron)가 하나 더 많은 원소를 넣은 n형과 전자가 부족해 구멍(정공, Hole)이 생긴 p형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는다. 흔히 내 안의 결함과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려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물리적 세계에서는 ‘정공(Hole)’이라는 빈자리가 있어야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가 형성되듯, 영적 세계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

도핑 과정은 사실 고통스럽다. 순수한 실리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견고한 결합이 깨어지고 이물질이 침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핑 공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자아의 견고한 결합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순물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만을 축복으로 여겼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사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틈 사이로 흐르는 당신의 생명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12장 9절 말씀처럼, 완벽한 자아라는 우상에 갇혀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해 온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이 그저 차가운 모래알에 불과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도핑’되지 않은 인간의 의(義) 역시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 결국, 나의 비어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관통하기 시작한다.



PN 접합과 장벽 돌파 - ‘자신의 상식과 안위 포기’

반도체 내에서 p형과 n형이 만나는 PN 접합(Junction) 부위에는 ‘공핍층(Depletion Region)’이라는 장벽이 형성된다. 이 영역은 전자와 정공이 서로 상쇄되어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즉 아무것도 흐를 수 없는 절연 상태이다. 이 장벽은 외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이 가해지지 않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장벽은 허물어지고, 비로소 빛과 정보가 흐르기 시작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세상과 복음의 접경지대에서 이 ‘공핍층’에 머물러 있다. 세상과 타협한 채 온전한 헌신이 결여된 미지근한 신앙은 아무런 영적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성경 속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안위를 포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는 문턱전압과 같은 순간으로 볼 수 있다. 0.6~0.7V라는 아주 작은 문턱전압의 차이가 반도체의 운명을 가르듯, 우리의 작은 순종의 결단이 영적 생명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문턱 아래에서 서성였던 영적 무기력증을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앉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장벽 너머로 발을 내딛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계산적인 순종에 머물렀던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 또한 나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낮은 전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뚫고 흐르는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를 힘입어 ‘순종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게이트와 절제 - ‘통제권의 이양’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본 단위인 트랜지스터(MOSFET)는 ‘게이트(Gate)’라는 전극을 통해 제어된다. 게이트에 전압이 가해질 때만 소스(Source)에서 드레인(Drain)으로 전류가 흐르고(On), 전압이 사라지면 즉시 흐름이 멈춘다(Off). 이 제어가 무너지면 소자(Device)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질서를 갖게 된다. 성령의

아름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인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다스리는 게이트가 무너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멈추고 움직이는 것이다. 반도체 칩 안의 수억 개 트랜지스터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중앙 장치의 클럭 신호에 맞추어 열리고 닫히듯,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에 맞추어 정렬되어야 한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거룩한 브레이크’에 있다(잠 16:9).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반응해서 멈출 때는 멈추고(Stop), 달려갈 때는 장벽을 뛰어 넘어 나아가는(Go) 철저한 ‘통제권의 이양’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

절연과 거룩 - ‘세상과의 구별’

반도체 칩 내부에는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밀집해 있다. 이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결은 소자 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절연층(Isolation Layer)에 있다. 만약 이 절연이 무너지면 신호가 뒤섞인다면, 아무리 고성능 프로세서라 할지라도 오동작을 일으키며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처리해 낼 수 없다.

성도의 삶에서 이 절연층은 곧 ‘거룩’이며 ‘세상과의 구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뒤섞여 ‘누전’이 일어나는 삶을 회개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절연층을 얇게 만들라고 유혹한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전도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럴듯한 핑계로 우리는 거룩의 경계선을 허물어 왔다. 그러나 신호가 뒤섞인 반도체는 결국 노이즈에 불과하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내 영혼의 회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산화막을 두텁게 쌓지 못했던 불성실함을 회개하자. 구별 없이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롬 12:2).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신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산화막(Oxide)이 층을 이루듯,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절연층을 두텁게 세워야 한다. 혼탁한 세상의 노이즈 속에서도 하늘의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순결한 소자(Device)가 되어야 한다.

방열과 온유 - ‘살아있는 반도체’로 거듭나기

반도체는 동작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소자는 성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어 결국 동작을 멈추게 된다. 그래서 고성능 칩(Chip)일수록 강력한 방열(Heat Sink)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리적으로 열은 에너지의 무질서한 방출이다.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열’이 발생할 때가 있다. 분노와 시기, 열등감, 그리고 지나친 자기 과시는 영혼을 과열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을 상하게 하고, 결국 나 자신까지 무너뜨렸던 과열된 삶을 회개해야 한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곳에는 열이 발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내 힘과 의지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영적인 방열 과정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 스스로 열기에 타버렸던 교만한 열심을 회개하자.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사랑이 공존하는 온유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강력함’이다(잠 16:31).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열 시스템인 온유와 겸손을 덧입을 때 우리는 과부하 없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디지털 반도체는 0(Off)과 1(On)의 정직한 조합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그 사이의 모호한 지점은 오작동일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정직해야 한다. 중간 지대에 서서 양다리걸 걸치는 것은 신앙의 논리 회로에서 오류와 같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회로 기판 위에서 복음의 전류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반도체’로 거듭나야 한다. 나의 빈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총만함이 흐르게 하고, 순종의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을 기쁨으로 넘어서며, 하나님의 통제(Gate)에 온전히 복종하자.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Insulation)을 지키고, 열기(Heat)를 다스리는 온유함을 회복해야 한다.

창조주가 물질세계의 가장 작은 반도체 속에 숨겨두신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설계자의 본래 목적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독후감 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 개최

8월 23일 제출 마감, 9월 6일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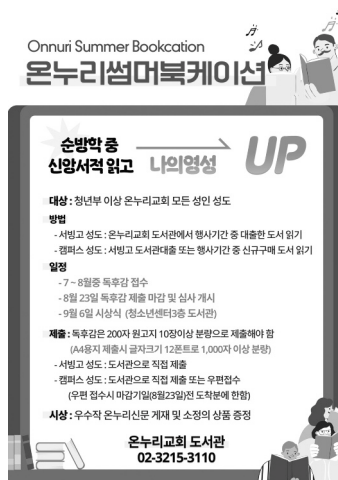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7~8월)에 온누리교회 독후감 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을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소속 성인 성도(청년부 이상)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상 도서는 온누리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두란노서점에서 구매한 신앙 서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23일(일)까지 독후감을 200자 원고지 10장 이상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

다(A4용지 글자 크기 12, 1,000자 이상). 독후감 원고는 온누리도서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8월 23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시상식은 9월 6일(일)에 한다. 우수작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소정의 상품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110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

7월 19일 ‘제이흠-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

제이흠과 온누리울타리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특별세미나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에서는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베이비박스 설립, 한국입양홍보회 이사)가 강의한다. 입양, 가정위탁, 보육원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참여 방법 등도 안내한다.

‘제이흠-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이름, 공동체, 관심 사역 등을 적어야 한다.

제이흠은 입양·위탁 가정 공동체다. 태아생명보호 운동, 입양 및 가정위탁 홍보,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5시 정기 모임을 한다.

온누리울타리는 보육원 아동 결연(열린울타리)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푸른울타리) 사역팀이다. 보육원 아동 가정 결연, 자립준비청년 특별 세미나,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등을 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오전 열린울타리, 오후 푸른울타리) 정기 모임을 한다.



/ 홍하영 기자

FA 25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 서류 마감, 7월 18일 또는 25일 면접

FA(Frontier Agency movement) 25기 대학청년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7월 6일(월)까지 이메일(fa@tim.or.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양식은 두란노국제선교교회(TIM) 홈페이지(tim.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 및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인 세례교인이다.

35세 이하 미혼(90년생 8월 이후 출생)이면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FA 25기 단기선교사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토) 또는 25일(토) 면접을 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합숙 훈련을 받고, 9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현장사역에 나선다.

문의: 070-4464-8103(8105)

/ 남현영 기자

도시교회선교팀, 공동체 및 재능기부자 모집

도시교회선교팀에서 도시미자립교회 섬김에 함께할 공동체와 재능기부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현재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9곳이 ‘1다락방1사역’으로 도시미자립교회와 연결돼 정기적인 예배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동역자를 기다리는 교회가 수도권 6곳, 비수도권(군산, 부산, 양산, 김해, 거제 등) 9곳 등 총 15곳에 달한다. 도시미자립교회를 함께 섬길 공동체에서는 전화(010-2269-1591)로 문의

하면 된다.

도시미자립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재능기부자도 상시 모집한다. 전기, 설비,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간판, 인테리어 등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자격증 보유자나 업계 종사자, 은퇴 기술자, 기술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와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2269-1591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 농업 기반 구축

NGO 더멋진세상이 KOICA와 함께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 가능 농업 기반 구축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 딸기, 참외 등 작물을 재배하고, 현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세네갈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收買), 판매 체계 강화, 운반 수단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배송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6기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8일(일)부터 8월 22일(토)까지 매주 일요일 영상 강의가 업로드된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잠재성을 발굴하도록 돕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7월 8일(수)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6224-1329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7월 4일 오전 11시 채빛섬 애니버서리홀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2026 Hidden Paradise’가 오는 7월 4일(토) 오전 11시 반포한강공원 채빛섬 애니버서리홀에서 ‘진리로 가는 항해’(요 14:6)를 주제로 막 오른다. 로스쿨기독교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맞춤형도팀과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가 후원한다.

‘2026 Hidden Paradise’에서는 공연, 법조 선배들과의 식사, 토크쇼, 샌드아트, 메시지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고, 윤동환 교수(해커스법아카데미) 응원, 홍인석 변호사 공연, CRUX 특순, 박진아 작가 샌드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 초청 대상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및 저년차 법조인이다. 초청자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7월 1일(수)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이메일(lawchristianu@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 ‘2026 Hidden Paradise’로 하면 된다.

이은경 변호사(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행사에서 다음세대 법조인들이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스포츠전도팀,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스포츠전도팀에서 ‘축볼(Tchoukball)과 스포츠선교 이야기’를 개최한다. 6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공동체 리더십과 청소년 사역자,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축볼’은 핸드볼형 게임으로, 뉴스포츠(New Sports)의 대표 종목이다. 교회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선교의 효과적인 플랫폼으

로 사용되고 있다.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에서는 축볼 소개와 간증, 복음 전파 사례 등을 공유한다. 축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축볼로 이루는 공동체 연합 가능성과 스포츠 전도의 가능성, 청소년 사역과 다음세대 전도의 접점 등을 주제로 나눔도 한다. 박종훈 집사(축볼 국가대표선수, 꿈이있는미래학교 교무부장)가 강의한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맘애편스, 힐링캠프 ‘함께 가는 길’

한부모가정, 맘애편스 봉사자 등 8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소속 한부모가정사역팀 ‘맘애편스’가 지난 6월 13일(토)과 14일(일) 힐링캠프 ‘함께 가는 길’을 개최했다. 한부모가정 엄마와 자녀, 맘애편스 리더십 및 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맘애편스 힐링캠프 ‘함께 걷는 길’에서는 박형준 목사(맘애편스 담당) 설교,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

부장) 강의, 소그룹 나눔, 야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맘애편스는 미혼양육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정을 섬기는 사역팀이다. 한부모가정의 영적,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가정과 멘토를 일대일로 연결해서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제31기 하트스쿨 수료식

부모 17명, 어린이 18명 수료

제31기 하트스쿨 수료식이 지난 6월 20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있었다. 하트스쿨 과정을 마친 부모 17명, 어린이 18명이 수료했다. 하트스쿨 31기는 지난 4월 4일(토) 개강해서 10주 동안 과정을 이어왔다.

하트스쿨은 가정 내 관계 회복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부모 과정에서는 자녀 교육법과 부부 간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고, 어린이 과정에서는 감정표현하기, 비전 스케치, 내면 상자 만들기 등 건강한 자아 형성을 돕는 활동을 한다.

/ 홍하영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 개최

목회자 및 아웃리치팀 리더십 등 2,223명 참석



2026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

2026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이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지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목회자 및 아웃리치팀 리더십, 성도 등 2,223명이 참석했다.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은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 선교사 특순,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

교회 담당) 아웃리치팀 소개 및 축복,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아웃리치 교육 및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은 4:1~11)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아웃리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아웃리치라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효은 성도(일산과주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특별히 선교사와 목회자 가정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故 하용조 목사 디지털 자료 찾습니다”

CGN 풍당, 하용조 목사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

CGN 풍당에서故 하용조 목사의 디지털 자료를 찾는다.故 하용조 목사의 설교와 말씀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사용한다.이 프로젝트는 CGN 풍당이 준비 중인 ‘하용조 목사 특별관’ 제작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하용조 목사의 말씀 강해, 설교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소장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6월 28일(일)부터 7월 26일(일)까지 QR코드로 신청하거나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와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1층 원형 카페에 설치된 수거함에 USB, DVD 등 실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92-0691



6.25 한국전쟁 76주년 홍보부스 운영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 이천만광장

한누리통합팀과 통일선교팀 연합이 6월 28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분단 81년의 기다림, 복음 통일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성도들이 탈북민사역과 통일 선교를 보다 쉽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

고자 마련했다.복음 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보부스에서는 ‘중보기도나루’에 기도제목 붙이기, 한누리통합팀과 통일선교팀 사역 안내, 한반도 킴 만들기, 북한 간식 시식, 북한 물품 전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20주년 감사예배

임직원과 내빈, 입소 어르신 등 85명 참석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온누리요양센터가 지난 6월 24일(수) 개원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과 내빈, 입소 어르신 등 8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조항진 장로(한강공동체)의 대표기도,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권사의 특순, 양재경 목사(용인온누리교회 담당)의

말씀 선포,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의 격려사, 우수직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시니어 싱어즈의 특순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개원 20년을 맞아 성장과 섬김의 발자취를 담은 <온누리요양센터 20년사>를 발간했다.

/ 남현영 기자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학교 훈련생 모집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2026 Summer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학교’를 개최한다.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열린다.

2026 경배와찬양학교는 대상에 따라 세 과정이 운영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는 7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는 7월 30일(목)부터 8월 1일(토)까지, ‘청지기들을 위한 경배와찬양학교’는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진행된다.

문의: 02-796-9700

화성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봉사자 모집

안산M센터 소속 화성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이주 배경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토요일 토픽반과 주중반이다. 토요일 토픽반은 7월 3일(금)까지, 주중반은 상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 유경험자 또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소지자다. 신청은 전화(031-8077-9110)나 이메일(onnurimle@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010-2259-8575

7월 온누리 전시회

5일까지 전은선 개인전, 11일까지 조영배 드로잉전

7월에도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린다.아트비전 회원 전은선 작가의 개인전 ‘조용히 함께 하시는 위로’가 7월 5일(일)까지 온누리 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에서 이어진다. ‘생명의 강’, ‘생명의 해안선’, ‘새벽의 은총

’ 등 작품 35점을 전시한다.조영배 작가의 드로잉전은 7월 11일(토)까지 사랑홀갤러리(신관 1층)에서 진행된다. ‘상자 속의 농장’, ‘다시 생명으로’ 등 작품 18점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10-3128-2332

대전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7월 30일, 8월 1일 대전 비전홀

대전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0일(목)과 8월 1일(토) 대전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7월 30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8월 1일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30일까지 전화(010-3489-2080)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이혼한 남녀,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타교회 성도도 신청 가능).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대전드림어게인스쿨에서는 ‘자아상 회복’, ‘못다한 우리들의 이야기(힐링 터치)’, ‘재혼 간증(이혼 회복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489-2080

010-2539-5665

6월 세레자

<서빙고>		이교		■SNS	
김다원 080602	이준영 251126	신슬아 230914	서현진 980811	김지영 960227	
김선국 730219	이창환 이만재	신호호 박화인	유아	유아	
김영분 641001	임리나 260406	심이안 251119	선이안 260223	박노아 250919	
정윤주 770405	임한성 배수민	심요한 최지선	선선규 도영희	박종찬 박지혜	
유아		윤도희 250721			
김리은 251126	<양재>	윤상철 조성아	■요셉		
김은찬 차수민	김소영 730315	은시아 251110	이소현 971224	■SNS CROSS	
김주하 241215	박상태 861011	은현중 박효은		김대영 930102	
김민섭 한지혜	박형실 700529				
박서린 251025	이용식 660101	■J4U			
박진훈 배미현	유아	김지은 960524			
유빛나 250410	김이준 230310	<대학청년>			
유효상 정승연	김선울 박다은	■여호수아			
이여름 250714	김하진 231010	엄정희 960517			
		윤다은 960109			
		입교			
		오영주 970524			
		조한익 951031			



한일청년연합집회 기·도·제·목

- 6월 28일(일) 일본 청년들이 ‘The Way’를 소망하며, 일정이 잘 조정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 6월 29일(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강력히 연합되도록
- 6월 30일(화) 장마 기간 피해가 없고, 모든 참석자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 7월 1일(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석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 7월 2일(목)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넘치도록
- 7월 3일(금) ‘The Way’가 준비된 대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 7월 4일(토) 한일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확신이 생기는 시간이 되도록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계기술훈련 참가자 간증



/ 최애심 성도(성북공동체)

관계 문제는 내게 늘 숙제였다. 관계기술훈련을 하면서 미성숙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성숙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어느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성숙의 계단에서 번번이 발을 헛디뎠음을 알았을 때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책 <관계의 기술>은 문제보다 관계에 집중하라고 했다. ‘가정, 일터, 교회에서의 나’를 관계의 관점으로 돌아보았다. 반복되는 관계기술훈련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온유한 보호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문제에서 관계로의 관점 전환은 문제에 집착하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곤 했던 관계 문제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오래 곪아 있던 자리에 회복의 새살이 돋는 듯했다. 그 시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계기술훈련은 참 시기적절했다. 배우는 동시에 일터와 교회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일이 생겼고, 배운 대로 결과가 나타나서 즐거웠다. 트랙2 시간에 어느 부부의 나눔이 있었다.

‘뒷동산 과학 소풍’ 봉사자 간증



/ 권해욱 팀장(양재 창조과학선교팀장, 경기A공동체)

양재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선교팀’에는 특별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뒷동산 과학 소풍’이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교회 뒤편에 숲과 잔디밭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선교팀에서는 이 축복받은 자연을 소재로 학기마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학기에는 ‘꽃’을 주제로 수업했다.

몇 달에 걸친 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피어있는 봄꽃들을 관찰했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님은 왜 이 많은 꽃을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색깔로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묵상 중 얻은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꽃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과 눈을 주셨다. 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사랑하는 딸아, 힘내야지!”

남편을 힘들게 하는 동료들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 주일설교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마음을 바위처럼 누르던 무거움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축복하려고, 기도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썼다. 이러다 미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하기 싫었지만, 진심으로 애를 썼다. 그랬더니 바뀐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 중보기도 부탁도 했더니 거짓말처럼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안이 잔잔히 차올랐다.

현실은 늘 녹록지 않다. 하지만 깨지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먹먹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힘내야지!”라며 마음을 만져 주신다. 그러면 내 영과 혼은 또다시 진공 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깃털처럼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진다. 관계기술훈련 트랙2가 참 좋았다. 어찌지 못하던 일상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복과 치유의 여정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꽃 속에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진화론의 거짓된 논리에 지배된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은 과연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진화한 것일까? 그렇다면 번식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꽃들을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게 진화할 이유가 있었을까? 또한 단순히 홀씨 하나로 번식할 수 있는 고사리마저 곤충, 바람, 새의 힘까지 빌어야 하는 복잡한 유성생식으로 굳이 진화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물음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창조의 큰 믿음을 안고 뒷동산 소풍을 준비했다. 뒷동산 과학 소풍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소재가 고갈 없이 늘 새로운 레퍼토리와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신기한 꽃의 세계’ 강의, 꽃가루 현미경 관찰, 삼투압을 이용한 물관 관찰, 야외 탐사 활동 등을 섬겨 주신 창조과학선교팀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에 핀 꽃들을 잡초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운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유은영 성도(Point5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게 전도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어려운 마음을 안고 시작했는데,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들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분명한 진리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특히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 나 역시 삶 속에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혼자서 해결하려 발버둥 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불안의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전도 현장에서도 귀한 것들을 보았다. 70대 조원 두 분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고,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됐다. ‘나도 노년에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전도 과정에서 그분들과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며 뚜렷한 대비를 보았다. 예수님을 믿는 분은 얼굴이 밝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자신의 사역지로

전도와 삶 그리고 복음

여기며 기쁘게 살아가셨다. 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연약함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죽음 이후 심판과 영생이 약속된 삶이 이 땅에서도 이토록 다른 빛깔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다.

놀라운 순간도 있었다. 석가탄신일, 절에 간 부인을 기다리며 양재공원에 계시던 한 불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함께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영혼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실감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임을 배웠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더니 그 관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저 일상의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깨달았다. 앞으로 5분 복음을 더욱 철저히 익혀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내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유수정 자매(W청년부)

기독교 NGO단체에서 일하며 삶과 신앙 사역에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은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양육자님을 붙여 주셨다. 기독교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일해 오신 양육자님은 일이 곧 사역이 되는 현장을 먼저 걸어오신 영적 선배였다. 덕분에 직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공감하며 나눌 수 있었다.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혼자서 아닌 함께 붙들 수 있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품어왔던 상처까지 꺼내 나눌 수 있었던 점이였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이토록 솔직하게 드러낸 것은 살면서 처음이었다.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편견 없이 들어주시는 양육자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내 삶과 고민을 아는 영적 선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조언해 주신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였다.

내게 꼭 필요한 선물

교재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다가왔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배웠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의 핵심처럼, 이 과정은 내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며, 일터와 삶에 하나씩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신앙의 선배로, 삶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신 양육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

시온교회 기도편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각계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 ‘10·9 시온교회 박해 사건’이 발발한 이후, 어느덧 25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온교회에게 이 밤낮의 시간들은 눈물과 험난함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했던 광야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관심과 기도, 연대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행 상황

2025년 11월 18일, 베이하이(北海) 공안국 인하이(銀海)분국은 ‘정보네트워크 불법 이용죄’ 혐의로 시온교회의 목회자와 동역자 18명을 정식 구속(보석 청구 기각 및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8일 기준, 공안기관의 형사 피의자 조사는 세 차례의 연기를 거쳐 중대 사건의 최장 수사 구금 기한인 7개월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6년 6월 18일, 구금되어 있던 형제자매 중 9명이 보석(취保候심)으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석방된 이들은 쑨충(孫聰) 목사, 류장(劉江) 형제, 리성위안(李盛娟) 자매, 웨이윈페이(魏雲斐) 자매, 안메이(安梅) 자매, 잔거(戰歌) 자매, 후옌쯔(胡燕子) 자매, 메이리밍(梅黎明) 자매, 주밍리(朱明立) 자매입니다. 저희는 이 소식에 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과 동역자들은 즉시 베이하이 현장으로 달려가, 오랜 시간 격리되어 있던 9명의 형제자매들을 꽃다발과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동시에 마음 무거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거나 송치를 앞두고 있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밍르(金明日) 목사, 왕린(王林) 목사, 가오잉자(高穎佳) 목사, 인후이빈(尹會彬) 목사, 류전빈(劉楨彬) 목사, 린수청(林書鋤) 목사, 왕충(王聰) 목사(여), 왕중(王中) 장로, 우추위(吳秋雨) 자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기존의 혐의였던 ‘정보네트워크 불법 이용죄’가 ‘불법 경영죄’와 ‘사기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될 최종 기소 혐의는 담당 변호인단이 검찰청의 수사 기록(권증)을 열람한 후에야 정확히 확인될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요청



첫째, 보석으로 석방된 9명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감사와 간구
둘째, 기소를 앞둔 9명의 목회자·동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
셋째, 검찰의 심사와 향후 기소 과정을 위한 기도
넷째, 변호인단의 공판 변론을 위한 기도
다섯째, 시온교회의 향후 목양과 사역을 위한 기도

첫째, 보석으로 석방된 9명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감사와 간구

은혜를 베푸시어 9명의 형제자매를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그리던 가족 및 성도들과 재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9명의 상태는 양호하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들의 심신과 가정,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영적 공급과 지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비록 보석 상태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소를 앞둔 9명의 목회자·동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기소를 앞둔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때에 이 주님의 종들을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상실감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4일, 같은 날에 두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밍르 목사님의 딸 그레이스(Grace) 가정의 아들을 얻었고, 린수청 목사님 가정의 딸을 얻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기업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통해 메시아의 해

산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듯, 지금도 영원한 새 생명들을 낳아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검찰의 심사와 향후 기소 과정을 위한 기도

본 사건을 담당한 베이하이시 인하이구 인민검찰원과 검찰청, 그리고 모든 실무 담당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성경학교’가 결코 ‘불법 경영’이 아니며 교회의 ‘헌금’ 또한 상업적 ‘사기’가 아님을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며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검찰 기관은 사실을 직시하고 법에 따라 진밍르 목사를 비롯한 9명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법 경영죄’ 및 ‘사기죄’라는 부당한 혐의를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함으로써,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사법 본연의 정의를 실현하고, 신앙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변호인단의 공판 변론을 위한 기도

만약 검찰이 본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더라도, 주님께서 변호사들에게 담대함과 지혜, 전략과 구별을 주셔서 법에 따라 당당히 변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변호인단이 모든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순조롭게 열람하여 공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혜로운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앞으로의 법적 대처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변

호사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법정에서 선포될 목사님들과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공의롭게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시온교회의 향후 목양과 사역을 위한 기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대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사,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히 10:35),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엡 4:3),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요 13:35),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소망은 단순히 구금된 9명의 시온교회 목회자들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계 21:5), 만민의 손을 잡고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실(사 2:2)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이번 시온교회 박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당하는 이 사법적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꺾어 경성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2026년 6월 19일.

/ 시온교회 목회팀, 장로회, 당회, 가족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화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째 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째 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째 주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대상: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쫓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중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47-11 안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살교회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한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김태웅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외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울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울길 166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천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9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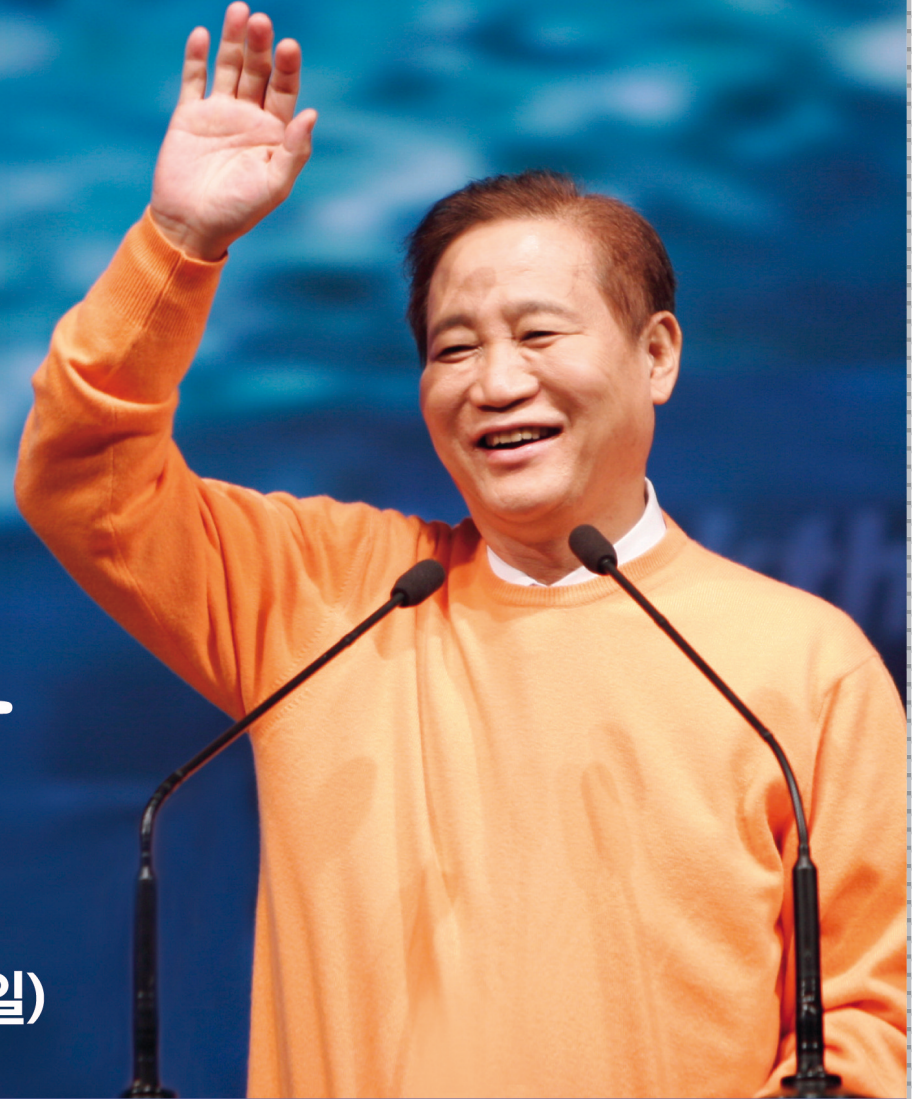
[illegible]

소천 6/19(금) 송파B 이재소 성도 부군상 고 병관식 6/19(금) 분당B 변정임 성도 부친상, 김태일 성도 방부상 고 병관식 6/21(일) 강남A 임명빈 성도 부친상, 김형로 집사 방부상 고 임일출 6/21(일) 브릿지33+ 김지은 집사 부친상 고 김진웅 6/21(일) 분당B 김광은 성도 부친상, 전계홍 성도 방부상 고 김진웅 6/21(일) 서초B 백신정 성도 부친상, 이준형 성도 방부상 고 백창혁 6/21(일) 이촌 고 박혜자 성도 6/22(월) 영등포구로 남명현 장로 모친상 고 김문자 6/23(화) S브릿지 장지원 성도 부친상 고 장석고 6/23(화) 일산파주 조성춘 성도 부친상 고 조국영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웅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 르신) 내용: 이미웅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웅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신청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계층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5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식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 교회 현금관리 안내 심의준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송도지점 북카페 근무자(서점 재고관리 및 식음료 제 조) 1명 형태: 계약직 1명(1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주5일 근 무(주말 근무 가능자) 접수: 홈페이지(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선교재단 인사/노무 전문가 정규직원 채용 업무: 인사기획, 노무관리 등 자격: 대졸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등 우대: 노무법인 등 실무자 적극 우대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

당신의 영상이 특별관이 됩니다

기증기간 : 6.28.(주일) ~ 7.26.(주일)



故 하용조 목사님의 디지털 자료를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하용조 목사님 말씀 강해나 설교 영상, 음성 파일이 있으신가요?
성도님께서 소중한 간직해 오신 자료를 CGN 풍당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를 거쳐 풍당 '하용조 목사 특별관'에 아카이빙하여,
더 많은 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접수 대상

하용조 목사 관련 디지털 파일
(말씀 강해 · 설교 영상, 음성 파일 등)

참여 방법

오프라인 수거함 위치 (USB, DVD 등 실물 매체)



서빙고 본관 1층 로비
(안내실 측 기둥 옆)

양재 지하 1층 원형 카페

온라인

구글폼을 통한
파일 업로드

